



천주교의정부교구
DIOCESE OF UIJEONGBU

“백 번을 생각해도,
천주교는 세상을 구할
좋은 약입니다.”



의정부교구 순교자공경위원회

잊히고 잊힌, 그럼에도 잊힐 수 없는...



- <백서>의 주인공 황사영을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황사영(1776~1801)의 신원;

창원황씨 판윤공파, 증조 황준 공조판서 지낸 명문가,
부친 황석범 29세 요절, 어머니 평창이씨 이윤희,
애오개(아현), 만15세 증광시(소과) 진사시(126명 중 113등),
창덕궁 이문원에서의 정조와의 만남...

**진사시(제술과), 생원시(명경과) 法宮 離宮

- 촉망받던 유생은 왜 출사하지 않았을까?

외가 이승훈의 학문적 영향(서학 내지 양명학)
처가 정약종(아우구스티노)복자의 교리교육...

1794년(신미년서한) 입교, 1795년 세례,
주문모 신부..명도회 하부 육회 이끌어..

**출사出仕의 길, 신앙의 길

- 황사영에 대한 시선...

역적이냐..순교자냐?

능지처사陵遲處死(세상의 눈)와 殉教(교회 시각)

조선의 형벌...

조선의 행형 제도 ①형사 절차의 원칙; 자백주의(근대 형법 증거주의)

②오형五刑 태장도유사笞杖徒流死(현대 형법 벌금/과료, 징역/금고, 무기징역/사형)

특히 사형은 사사(賜死·사약형), 교형(교수형), 참수형, 능지처참(머리와 손·발을 자르는 형) 등 4등급으로 구분.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의 죄목은? 강상죄綱常罪

삼강三綱(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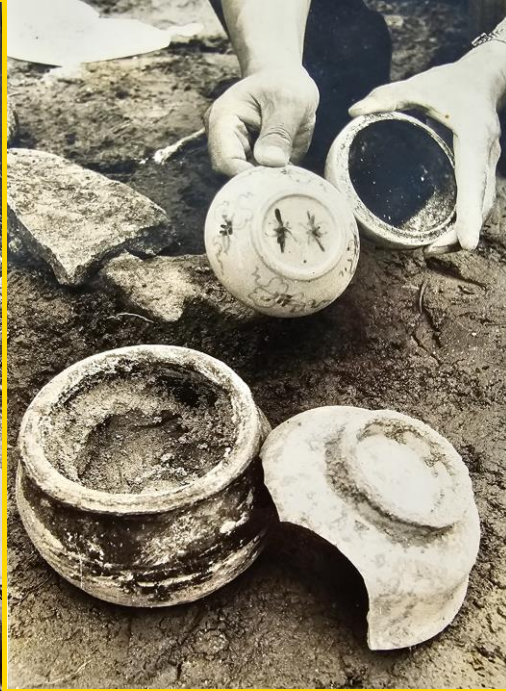
오상五常(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親 義 別 序 信=仁 義 禮 智 信)



황사영에 대한 처벌

능지처사형(죄목 대역부도죄)
1801년 12월 20일(음 11월 5일) 서울 서소문 밖 네거리
시신은 친척들이 거둬 송추 가마골에 묻혔고, 가산 몰수
어머니 이윤혜, 거제부의 비
부인 정명련 제주 대정현(모슬포)의 비
아들 경한(보명 경헌) 추자도의 노
숙부 황석필 함경도 경흥 유배

외면당하고 외면당하고 외면당한...



발굴 비화

**1980년 8월 31일~9월 3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송추 가마골, 창원황씨 판윤공파 선산.

** 발굴자

변기영 몬시놀, 유홍렬 서울대학교수, 황용호 동국대 교수, 감사공파 종손 황인석씨, 산직 현학봉씨...

** 발굴품

오지항아리와 십자가 형태 돌 9개 / 청화백자합 / 검은 천조각
관 내부 유해는 확인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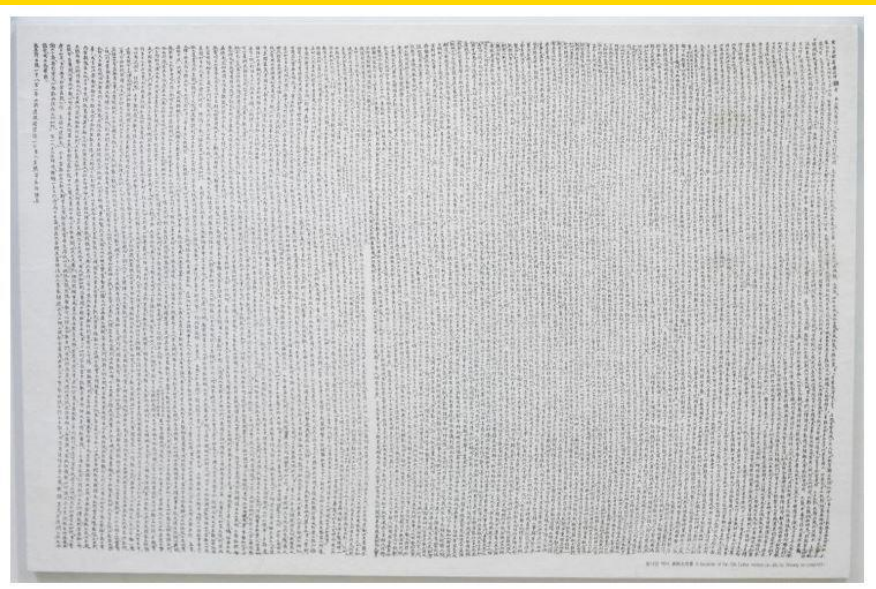
• 황사영7세손 황세환(요셉)씨 소장하다 한국교회사연구소에 기증
현재 절두산성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소장

• 검은 천조각(명주토시 확인)

1790년 창덕궁 이문원(시제 소년행).. 증광시(소과) 진사시 만15세 입격..
정조앞 전시 1등...정조가 직접 자신의 앞으로 불러서 손을 잡아주며 탁용
擢用 약속... 손에 평생 매달고 다니면 명주실... 뗏속까지 유생이었을 듯.

백서에 대한 논란과

시복 추진



백서 내용

가로 62cm, 세로 38cm의 명주明紬 위에 가는 모필로 당시 외교문서에나 쓰이던 육조시대의 유려한 사륙병려체四六駢儷體 문장에, 유려하고 단정한 해서체楷書體로 써내린 122행 13,384자의 서한

백서 구성

서론(1~6행)과 본론(7~88행, 이상 72%), 결론·대안(89~122행) 등 세 부분으로 구성. 서론과 본론은 을묘박해(1795년)부터 신유박해(1801년)까지 박해 전말과 순교자약전 서술



• 백서의 결론(대안): 2조 흥계, 3조 흥언

① 원조요청, 책문 점포 설치

② 도득황지圖得皇旨, 내복감호內服監護, 대박청래大舶請來

1925년 7월 5일 79위 시복 때 교황 비오11세에 기증.. 현재 교황청 민속박물관 소장 중.

시복 추진 경과



- 백서에 대한 논란과 달리 황사영의 죽음을 순교로 보는 데 아무런 이견이 없다.(3가지 요건 충족)

①실제로 죽음을 당했는가?(실제적 죽음)

②그 죽음이 그리스도신앙과 진리를 증오해 부과된 것인가?
(박해자와 순교의 원인)

③신앙의 진리를 위해 죽음을 받아들였는가?

- 시복추진 경과

**2013년 3월 시복대상자 선정

(시복안건 제목;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2017년 2월 시복 안건 예비심사 개정

**총 33회기 거쳐 2021년 한국 천주교회 예비심사 법정 종료

**2021년 6월 교황청 시성부로 시복 건 넘어가 심사 진행 중.

**하느님의 종(Servus Dei) 황사영 알렉시오

백서로 조선을 뒤집어놓고 대역부도죄로 죽어갔던 황사영이 살아냈던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지켜내고자 했던 황사영의 꿈은?

“우리 주님의 넓은 사랑의 은총을 본받아,
성교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모든 이를 두루 사랑하시는 뜻을 드러내고…”
(吾主博愛之恩 顯聖教同仁之義…)